

전남 '1억 이상' 고소득 어가 2501곳

1위 완도, 지난해보다 527곳 증가...5억 원 이상 425곳 소비유형 맞춤형 전략, 판로 차별화, 양식시설 현대화 영향

전남도내에서 60대 이상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전복·굴·꼬막 등 패류를 양식하는 어민의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남도에서 양식·어선·팬송 등 어업을 통해 1억원 이상 고소득을 올린 어가가 2501곳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5억원 이상 초고소득을 올린 어가도 425곳에 달했다. 이 같은 소득 향상은 수산물 판로 다양화, 시설 현대화와 규모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민의 직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직거래법인 바이씨(buysea.co.kr)를 운영하는 등 도매·위판 비중이 높은 도내 수산물 유통 시스템에 변화를 주고 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어가 소득 5000만원 이상을 거둔 어가와 법인을 조사한 결과 연 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을 기록한 어가는 2501 어가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527어가(26.7%)가 늘었다.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른 바로 요리 세트(밀키트)와 가정간편식 제품 개발 등 소비유형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수산물 판로 차별화와 양식시설 현대화·규모화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소득 규모별로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어가가 1259어가(50.3%)로 가장 많았고,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817어가(32.6%)로 나타났다. 5억원 이상은 425어가(17.1%)로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전복, 굴, 꼬막 등 패류 양식이 721어가(28.8%)로 가장 많았고 ▲김·미역 등 해조류 양식 622어가(24.9%) ▲굴비 등 가공·유통 483어가(19.3%) ▲남치·우럭 등 어류양식 293어가(11.8%) ▲어선 어업 237어가(9.5%) 순이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참치, 갈치 등 어획량 감

소에 따라 어선어업 분야 고소득 어가 수는 다소 줄었으나 양식시설 현대화 등에 따른 고품질 수산물 생산으로 어패류 양식과 가공·유통 분야에서 큰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1064어가(42.5%)로 가장 많았고 ▲50대 749어가(29.9%) ▲40대 465어가(18.6%) ▲20·30대 청장년층 223어가(9%)였다. 지역별로는 완도가 669어가(2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흥 412어가(16.5%) ▲진도 371어가(14.8%) ▲영광 283어가(11.3%) ▲신안 282어가(11.2%) 순이었다.

이 가운데 영광은 참치잡기를 활용한 굴비 산업 규모화로 고소득 어가 수가 지난해보다 204어가 늘어 가장 많이 늘었다.

김현미 전남도 해운관광과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 등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1억 원 이상 고소득 어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안전하고 친환경적 수산물 생산 여건을 조성해 안심하고 전남 수산물을 소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완도수목원, 국립 난대수목원으로 탈바꿈 전남 완도수목원이 오는 8월 31일까지 휴무없이 숲속의 집 객실 10동, 삼나무숲 속 놀이터, 휴양림 내 산책로 등을 일반에 공개한다. 내부를 모두 편백으로 꾸민 숲속의 집 객실은 112㎡(34평)형 2동, 49㎡(15평)형 8동이 있다. 사진은 완도수목원 아열대 온실.

올 여름 완도자연휴양림에서 최상의 휴식을

8월31일까지 휴무일 없이 운영... '숲나들e' 누리집 선착순 예약

전국 최대 난대림과 다도해의 절경을 품은 완도자연휴양림이 여름 휴가철인 8월 31일까지 정기 휴무일 없이 정상 운영한다.

완도자연휴양림은 방문자 안내센터 1동과 숲속의 집 객실 10동, 삼나무숲 속 놀이터, 휴양림 내 산책로 등을 갖추고 있다. 내부를 모두 편백으로 꾸민 숲속의 집 객실은 112㎡(34평)형 2동, 49㎡(15평)형 8동으로 운영된다.

산림청 '숲나들e'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는 성수기 예약은 숙박 예정일 6주 전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예약 가능하므로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기존 산중에 있는 휴양림과 달리 탁 트인 지중해 풍 경관이 있는 국내 유일 완도자연휴양림은 객실

대부분이 남향으로 완도의 아름다운 다도해 전경을 즐길 수 있는 '힐링휴양지'로 주목받고 있다.

성수기 이용객 안전을 위해 숲속의 집 객실 안전 점검을 마쳤고, 호우를 대비한 비상근무 체계와 기상특보 단계별 대응계획도 수립했다. 또 신규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숲해설'을 진행하고 있어 이용객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면 전남도 완도수목원장은 "완도자연휴양림은 바다와 산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에 최적의 휴양지"라며 "이용객이 최상의 휴식을 즐기도록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국내여행 7말~8초 승용차 타고 동해안으로

국토부, 하계 휴가 통행실태 조사

올해 여름휴가 기간 국내 여행을 가려는 이들은 7월 말부터 8월 초에 승용차를 이용해 동해안으로 떠나겠다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국민 1만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하계휴가 통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교통 수요가 예상됐다고 23일 밝혔다.

휴가 여행 출발 예정 일자로 7월 29일~8월 4일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19.3%로 가장 많았고, 이어 8월 19일 이후가 16.6%, 7월 22~28일이 11.5% 등으로 나타났다. 여행 예정지는 동해안권(24.2%), 남해안권(19.6%), 서해안권(11.1%), 제주권(10.1%) 순이었다. 교통수단으로는 대부분 승용차(84.7%)를 이용할 것으로 답했다. 이어 항공(6.6%), 버스(4.6%), 철도

(3.7%), 해운(0.5%)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반영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2일간을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책 기간에는 총 1억121만명, 하루 평균 460만명(전년 대비 3.4% 증가)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루 평균 고속도로 이용 차량 대수는 523만대(전년 대비 5.1% 증가)로 예측됐다. 평소 주말(474만대)보다는 많고, 금요일(534만대)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이번 대책에는 갯길 차로 운영, 혼잡 도로 집중 관리, 휴가객을 위한 임시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고속버스, KTX, 항공편 등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늘리고, 다음 달 초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를 위한 이동 지원 방안 등도 포함했다.

/연합뉴스

광주연구원 초대 원장후보에 최치국 전 지방공평원 이사장

광주와 전남도의 정책연구기관인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이 본격적인 개원 준비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정책연구 싱크탱크인 (재)광주연구원 창립이사회를 열고, 초대 원장 후보자로 최치국 전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을 선정하는 등 공식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재단법인 광주연구원 이사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창립 이사회를 열고 최정 원장 후보자로 최 전 이사장을 선정했다. 연구원장은 다음 달 21일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같은 달 28일 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을 거쳐 연구원 이사장이 최종 임명한다.

최치국 후보자는 한국 정책공헌연구원 원장, 부산시 정책고문, 부산발전연구원 공학 정책연구센터장,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연구원 이사회는 정관,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광주연구원은 광주시와 전남도 협의에 따라 기존 광주·전남연구원 구성원 80명 가운데 연구원 16명을 포함한 34명 규모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 진곡산단에 있는 옛 광주 그린카잔흥원에 사무실을 마련해 다음 달 말이나 9월 초 공식 개원할 예정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을 거쳐 7월 14일 '전남연구원(JNI)'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연구원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6실 2단 9센터)을 시행했다. 전남 연구원은 전남에 특화된 연구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분리 운영으로 축소된 연구·사무인력을 조속히 충원하는 등 업무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힘 보탠다

2학기부터 전남대 등 5개 지역대학에 한끼 1000원 지원

광주시가 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문화 확산 등을 위해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프로그램 지원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천원의 아침밥은 정부 1000원, 대학생 1000원, 대학 측이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전면 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생들의 많은 이용으로 학생 식당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고 음식이 동나기도 한다는 게 대학측의 설명이다.

다만 대학측에선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인건비나 식자재비 등에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학기부터 전남대학교, 광

주과학기술원, 광주여대, 남부대, 호남대 등 5개 대학에 관련 예산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일단 한끼에 1000원씩, 5개 대학 4만90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 끼에 2000~3600원을 추가 부담해왔던 대학들은 예산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일부 대학은 식단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지원금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광주시도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대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공무원 소송비 지원 확대...심급별 1000만→1500만원

광주시가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기존에 심급별 1000만원이었던 지원 한도를 1500만원으로 늘렸다.

행사 사건에서 기소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 또는 피의자 조사도 하나의 심급으로 규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1~3심 재판을 포함한 총 지원 한도는 기존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광주시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극 행정을 펼치다가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인정되면 총

8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이 민사 소송에서 고의, 중과실로 패소가 확정되거나 형사 사건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미 지급된 소송 비용은 전액 회수한다. 행정종합배상 공제제도를 통한 소송 비용 지원 결정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소송 비용 지원 제도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갖춰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 금당부동산 •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 임대 보증금 2억8천 원세 2,400만원 포함
-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울포해수욕장인근)

- 경관 수려, 다세대, 숙박시설·펜션 등 적합
- 445평과 210평, 도로 좋은, 평당 100만원

무안군 운남면 내리 3,940㎡ (1,191평)

- 공시가 45백 527천원 전원생활적합. 1억1,900만원

무안군 청계면 강정리 바닷가마을 대지 850.6㎡ (257평)

-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바닷가 절 땅 4,650㎡ (1,406평)

- 공시가 7,527만원. 투자에 좋음. 매매가 1억6천

화순군 동면 장동리 (776평)

- 조용한 생활적합. 7,200만원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전 포함한 산 47,537㎡ (14,380평)

- 투자 등 적합 1억5,500 (평당 10,778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

공고

광주광역시 2023년 3383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05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피상속인 명 전은 미(1993. 6. 28.생)
등록기준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안삼로 1311의 1
최후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안삼로 1373(삼가)
사 망 일: 2023년 2월 28일

1. 위 피상속인의 일반상속재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그 채권 또는 수증 2023년 9월 25일 까지 상속재산 관리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의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명선
주 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성로 48. 308호 (미래타워)
신고처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성로 48. 308호 (미래타워)
문의처 061-571-4800

2023년 7월 24일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명선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1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나방

사찰(금) 안내

- 위 치: 강원도 읍내 거리 5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사찰
- 부 지: 약 1,700평
- 가 액: 9억
- 약사여래불 6m 있습니다.
- 대웅전 1동 삼성각 1동
- 108 톨탑 요사채 2동
- 집기일체 법회 바로 가능
- 답사 후 절중가능

문의 **033-562-0448**
휴대폰 **010-3832-4317**